

日本 大企業의 R&D 投資, 設備投資를 上廻

日本の 企業이 R&D를 重視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최근 日本의 國立科學技術 政策研究所는 日本의 50大企業(매출액 기준)의 R&D 투자액이 설비 투자액을 앞지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 기업은 1986년을 전후한 円高 현상 등 불리한 여건으로 설비 투자가 부진하였던 때도 있었으나, 1988년부터 설비 투자가 곧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설비 투자의 부진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1984년 50個 조사 대상 기업 중 10個 기업이 R&D 투자가 설비 투자를 상회하였으나, 1988년에는 18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加工組立型」 기업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설비 투자의 규모가 큰 「素材型」 기업과의 특성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加工組立型」 기업의 경우 51% 이상의 기업이 R&D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R&D 투자/설비 투자>1), (소재형) 기업의 경우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기업이 「상품을 만드는 集團」에서 어떠한 상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집단」으로 변신하는 징후로 설명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렇게 R&D 투자가 설비 투자를 상회하게 된 원인으로 대부분의 일본 大企業이 도입한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를 들고 있다. FMS는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소비자의 기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Product cycle을 고려한 多品種 少量生産 체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FMS의 도입이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해

서는 抑制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의 결과는 FMS가 설비 투자를 억제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提示하지 못하였다. 다만 조사 대상 기업의 대부분은 제품의 다양화, 생산 활동의 다각화 등을 위해 R&D에 투자한다는 응답을 하여 R&D 투자가 FMS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R&D 투자, 설비 투자 간의 역전 현상은 R&D 자체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이 조사의 결론이다. 특히 일본 내 他社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R&D 투자의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응답이 90%를 상회하고 있음이 이 결론을 뒷받침한다. 외국 기술의 도입 여건이 악화되어 R&D에 주력한다는 기업은 1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과는 달리 일본 기업이 얼마나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현상은 이른바 「生産의 外部化」이다.

즉 제품을 만드는 생산 활동은 外部(他社, 계열 기업)에 맡기고, 大企業은 R&D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1988년 현재 「加工組立型」 기업의 생산 外部化率は 35%로서, 1980년의 22%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素材型」 기업의 경우에도 外部化률이 12%에 달한다.

R&D 投資, 설비 투자의 역전 현상과 함께 日本 산업의 구조적 변혁을 예고하는 중요한 징후로 보아야 한다.

이는 또한 최근 국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우리 나라 산업이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아닐 수 없다.

〈뉴 플러시, 1991. 5.〉